

# 명품 선글라스

## GIVENCHY

## CELINE

# 지면광고에

# 한하여

# 75%할인

# 행사!

명품 선글라스 지방시 / 셀린느 개당 398,000원 **99,800원**

월 19,960원 무이자 5개월 / 신용카드

**오늘 2개 구매하시면 1개 더 드립니다!**

GIVENCHY



지방시 골드 트라이앵글 선글라스 호피블랙

GIVENCHY



지방시 G STAR 선글라스 호피브라운

GIVENCHY



지방시 G STAR 선글라스 로즈핑크

GIVENCHY



지방시 G STAR 선글라스 블랙

CELINE



셀린느 하금테 선글라스 호피

CELINE



셀린느 하금테 선글라스 블랙



지방시 창립자 위베르 드 지방시 오드리헵번, 영화 [티파니에서 아침을]의 장면, 1961 1961년 파리를 방문한 재클린 케네디 / 그레이스 켈리 부부

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지방시는 1952년 패션디자이너 '위베르 드 지방시' 로 부터 전개되었으며, 오드리헵번과 재클린 케네디를 비롯한 유명인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. 창립자인 '위베르 드 지방시'는 귀족집안에서 태어나 파리의 '에콜 데 보자르'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여 지방시의 제품들은 심플한 소재와 깨끗한 라인이 특징이다. 별개의 요소들이 상호보완을 이룰 수 있도록 조합하는 '세퍼레이츠'를 통한 믹스 앤드 매치로 도시적세련미를 표현하였다. 지방시의 스타일은 과시적이라든가 공격적인 혁신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외형적인 단순함과 우아함, 그리고 세련된 그 자체로 여성이 옷 등의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여성을 돋보이게 하

려는 지방시의 철학을 담고 있다. 지방시는 현재 프랑스를 대표 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. 세련된 프레임 컬러와 아시안얼굴형에 잘 어울리는 라운드형 섀입이라 남녀 모두에게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다. 렌즈가 단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어 고급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. 얼핏 비슷한 섀입의 두 선글라스지만, 렌즈컬러와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서 각각의 매력이 뚜렷한 두 제품이다. 요즘 같이 해외에 나가기 힘든 요즘 면세점을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모신다. 출시기념으로 면세점 판매가 398,000원에서 30만원 할인된 **99,800원**에 드립니다.

**프랑스 명품 선글라스 지방시 / 셀린느는 남녀공용입니다**

NAVER

한이름24.com 검색하세요

문의 1833-5288

<기업>427-131542-04-011 (주)참조은쇼핑24

<택배비 3,000원 소비자 부담>